

# 초등학교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Brassiere Wearing by Elementary School Girls

이 경 화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Yi, Kyong Hwa  
Dept. of Clothing, College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Wonkwang Univ.

---

###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help designing of well-fit and comfortable brassieres for the elementary school girls through the survey on actual condition of wearing brassieres.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for this study was the elementary school girls in the province of Jeonbuk and Taejeon c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The 40.2% of the total subjects were wearing brassieres like the 63.3% of the fourth, the 85.4% of the fifth, and the 89.7% of the sixth grade students. The main reason of non wearing brassieres was for the underdeveloped breast, and also that of wearing brassieres was for the good shape of the breast. The main types of brassieres were ranked "Tank Top type", "Mold type", and "Adolescent girl-Bra". They had started to wear brassieres by the recommendation of adults who were their mother or teachers, and usually wearing brassieres all day. They usually purchased brassieres "with mother together" or "only by their mother". The standard of choosing brassieres was also ranked by FASHION, CONVENIENCE, SIZE, TOUCH, and SWEAT ABSORPTION.

The total score of satisfaction for wearing brassieres was showed "Average score" and the score higher in Jeonju and Taejeon than in Kunsan. The higher grade and fatter was showed decreasing the score of satisfaction. The higher grade became, the more various for the size and preferable a pure cotton fabric for brassieres. The favorite types of brassieres were "Sport Bra" and "Volume-up Bra". They usually purchased a little larger size than their original size of that.

### I. 서 론

사춘기는 성인기의 시작으로 성적으로 성숙에 도달하는 시기이며, 신체적으로는 성호르몬(여성의 경우는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

스테론)의 분비로 인해 유방의 성장과 초경이 시작되는 등 생물학적 변화가 초래된다. 요즘의 사춘기 소녀의 유방 성장은 과거와 달리 조숙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일찍 나타나고 있으며, 영양, 보건, 위생, 기후, 사회경제 요인 등의 영향으로 개인에 따라 성적 성숙이 보다

---

본 연구는 1997년도 원광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빠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박춘희, 1982).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 문화, 경제 발전으로 생활 환경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의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최근 사춘기의 시작은 초등학교 3~4학년으로 매우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조선일보, 1996). 사춘기 소녀의 신체적 특징은 대체로 가슴이 커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젖꼭지가 커지고 앞으로 튀어나오며, 처음에는 원추형이었던 유방이 둥글게 변화된다. 사춘기 소녀의 유방은 여성으로서 성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심리적인 당혹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정신적인 부담을 주기도 한다(서봉연, 1983).

특히, 아동기 후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이에 따른 브래지어의 착용에 대한 거부감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브래지어의 착용을 기피할 경우, 유방 조직에 견인력이 없어 가슴이 처지게 되고, 유두의 돌출을 감추려는 의도로 척추가 굽는 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브래지어가 20대 여성의 신체 치수와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이와 같은 브래지어를 사춘기 소녀가 착용할 경우 치수가 맞지 않으며, 디자인도 성숙한 성인여성을 위한 것으로 다른 아동과 구별되기를 싫어하는 초등학교생이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생 전문 브래지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 “소녀용 브래지어”가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춘기 소녀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및 개발을 다룬 연구 논문은 전무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춘기의 시작 연령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브래지어의 착용실태 및 브래지어 착용 만족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초등학교생용 브래지어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조사기간

전북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4학년에서 6학년의 초등학교생 600명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착용실태를 질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중 584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내용이 부실한 24부를 제외한 후 560부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 설문조사 기간은 1997년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였으며 본 설문조사 기간은 1997년 5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미비한 질문지는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 2.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

본 연구를 위한 평가도구로 질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성인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에서 사용된 질문 항목과 최근 사춘기 소녀용 브래지어를 개발한 업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총 72문항(Likert type 질문 54문항 포함)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체적 내용은 대상자의 환경적 변인과, 성숙 정도에 관련된 문항, 브래지어 착용 여부 및 착용상황, 시착시기, 착용시간, 미착용/착용이유, 구입자 및 구입 기준, 시판 브래지어에 대한 만족 정도(치수, 촉감, 착용감, 디자인, 내구성 측면), 착용치수, 선호소재 및 브래지어 유형, 치수 선호 등에 관한 것으로 브래지어 既착용자와 착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교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율과 시장규모를 추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질문방법은 단답식, 도해식과 선다식 문항으로 하였으며, 구입기준 및 시판 브래지어 구입기준 및 만족 정도에 대한 평가는 Likert type 5점 평정척도법을 이용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설문 대상자 전체 집단에 대한 통계분석과 거주 지역별, 학년별, 체형별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때 체형별 구분은 Rohrer지수를 구한 후 이를 다시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의 세 체형으로 구분하여 각 체형간 설문결과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거주 지역 중 군산은 소도시, 대전은 광역시이며 전주는 이 두 도시의 중간 규모에 해당해 지역간 차이가 예측되므

로 통계 분석시 군산, 전주, 대전 지역을 나누어 지역간 차이를 검토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Range 등의 기초 통계치를 제시하였고, 이외 대부분의 항목들의 집단간 차이는  $\chi^2$  검증을 하였으며, 시판 브래지어 만족도 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거주지역별, 학년별, 체형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행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실태조사는 전북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확대해석 시에 유의하여야 하며, 치수 및 착용감 평가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였으므로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환경 변인

연구 대상자의 거주 지역별 인원 분포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분포

환경변인		통계치	학년	인원수(%)
거주 지역	군산		4학년	39 ( 33.1)
			5학년	44 ( 37.3)
			6학년	35 ( 29.7)
			총 계	118 (100.0)
	전주		4학년	40 ( 32.5)
			5학년	40 ( 32.5)
			6학년	43 ( 35.0)
			총 계	123 (100.0)
	대전		4학년	86 ( 27.0)
			5학년	67 ( 21.0)
			6학년	166 ( 52.0)
			총 계	319 (100.0)
총조사대상자			560 (100.0)	

<표 1>과 같이 실제 분석에 사용된 조사

대상자 수는 총 560명으로 군산 지역에서 118명, 전주지역에서 123명, 대전지역에서 319명으로 분포되어 있고 학년별 인원분포로 보면 6학년이 가장 많다. 조사 대상자의 Rohrer지수의 분포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는 총 조사대상자 중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기입한 456명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총 조사 대상자의 81.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계산된 Rohrer지수는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에 준해 비만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 체형으로 분류하였다.

①마른 체형: 조사 대상자의 25 백분위값 미만인 Rohrer지수 1.093미만의 체형 집단

②보통 체형: 조사 대상자의 25 백분위값 이상 75 백분위값 미만인 Rohrer지수 1.093이상 1.317미만에 해당하는 체형 집단

③비만 체형: 조사 대상자의 75 백분위값 이상인 Rohrer지수 1.317이상인 해당하는 체형 집단

<표 2> 조사 대상자의 Rohrer지수의 분포

구분	통계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치	최대치	Range	빈도(%)
거주 지	군산	1.19	0.15	0.94	1.61	0.67	79(17.3)
	전주	1.24	0.16	0.94	1.57	0.62	75(16.5)
	대전	1.23	0.22	0.49	2.25	1.76	302(66.2)
학년	4학년	1.28	0.25	0.49	2.25	1.76	125(27.4)
	5학년	1.24	0.18	0.88	1.83	0.95	105(23.1)
	6학년	1.20	0.17	0.86	1.77	0.91	226(49.5)
총 응답자	1.23	0.20	0.49	2.25	1.76	456(100.0)	

Rohrer지수의 구분 결과를 거주지 별로 보면 군산 지역 거주자의 Rohrer지수치가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대전, 전주 거주자의 Rohrer지수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표준편차를 볼 때 지수치 분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대전 지역 거주자의 경우 아주 마른 체형과 비만체형이 보다 많이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

Rohrer지수치의 고저에 따른 체형 구분은 학년별로 파악해 보면 4학년의 평균 Rohrer지수가 가장 높고 5학년, 6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학년 집단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의 최소치와 최대치와 동일해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4학년 학생의 지수치가 넓게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성적 성숙도

조사 대상자의 2차 성징의 발현 여부 및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생리를 시작한 나이와 유방이 돌출되기 시작한 나이를 거주지역별, 체형별로 파악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생리를 시작한 나이

(단위:%)

구분 문항	전체 n=521	거주지			학년			전체 n=426	체형		
		군산 n=113	전주 n=123	대전 n=285	4학년 n=151	5학년 n=137	6학년 n=233		마른 n=103	보통 n=218	비만 n=105
①생리안함	77.4	87.6	83.7	70.5	95.4	89.8	58.4	74.6	84.5	72.0	70.5
②10세미만	1.3	0.0	1.6	1.8	95.4	0.0	2.1	1.6	1.0	2.8	0.0
③10세	2.9	1.8	3.3	3.2	1.3	2.9	2.6	3.1	1.0	1.8	7.6
④11세	8.1	2.7	6.5	10.8	3.3	5.8	14.6	8.7	3.9	9.6	11.4
⑤12세	8.1	8.0	4.1	11.2	0.0	1.5	18.9	10.1	5.8	12.4	9.5
⑥13세	1.5	0.0	0.8	2.5	0.0	0.0	3.4	1.9	3.9	1.4	1.0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27.54^{**}$ df=10			$\chi^2=132.93^{***}$ df=10				$\chi^2=25.52$ df=10		

\* p<.05, \*\* p<.01, \*\*\* p<.001

이때 나이는 만 나이로 기산하였다. 먼저 생리를 시작한 나이는 거주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도시일수록 생리를 하지 않는 응답자의 수가 적으며, 생리를 시작한 나이의 빈도를 볼 때 군산은 12세, 전주는 11세, 대전은 12세와 11세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생리를 시작한 나이를 체형별로 살펴 본 결과 통계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유방이 나오기 시작한 나이를 거주지, 학년, 체형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때 나이는 만 나이로 기산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유방이 나오기 시작한 나이를 보면 아직 나오지 않은 대상자는 총 응답자의 19.1%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대상자가 만 11세 이하의 나이에 유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방이 나오기 시작한 나이는 거주지, 학년, 체형별에서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거주지별로 볼 때 유방이 아직 안 나온 대상자의 수는 전주>군산>대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산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1세>10세>10세미만>12세>13세의 순이며,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1세>10세>12세>

10세미만>13세의 순이다. 전주의 경우는 10세>10세미만>11세>12세>13세의 순으로 유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증가에 따른 유방의 돌출을 보면 4학년은 전체의 36.7%, 5학년 집단은 14.6%, 6학년 집단은 전체의 10.3%가 아직 유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별로는 마른체형>보통체형>비만체형의 순으로 아직 유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른체형과 보통체형은 11세에 비만체형은 10세에 유방이 나오기 시작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3. 브래지어 착용 실태

### 1) 브래지어 착용 여부

브래지어 착용율을 거주지별로 보면 군산은 전체의 70.2%, 전주는 74.1%, 대전은 51.3%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별 착용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 착용율을 보면 4학년은 93.8%, 5학년은 67.3%, 6학년은 33.6%가 브래지어를 아직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 5학년이 6학년에 비해 착용율이 낮게 나타나 학년별 유의차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체형별 착용율을 보면 마른 체형의 67.3%, 보통체형의 51.2%, 비만체형의 48.6%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만 체형자의 브래지어 착용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체형별 착용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유방이 나오기 시작한 나이 (단위:%)

구분	전체 n=551	거주지			학년			전체 n=450	체형		
		군산 n=116	전주 n=123	대전 n=312	4학년 n=158	5학년 n=151	6학년 n=242		마른 n=110	보통 n=228	비만 n=112
①아직안나옴	19.1	21.6	23.6	16.3	36.7	14.6	10.3	17.6	19.1	18.4	14.3
②10세 미만	14.0	12.9	20.3	11.9	34.8	7.9	4.1	13.3	11.8	12.3	17.0
③10세	27.2	25.0	37.4	24.0	21.5	39.7	23.1	25.6	16.4	25.4	34.8
④11세	27.9	29.3	12.2	33.7	7.0	33.8	38.0	30.0	32.7	31.1	25.0
⑤12세	10.5	9.5	4.9	13.1	0.0	4.0	21.5	12.0	17.3	11.0	8.9
⑥13세	1.3	1.7	1.6	1.0	0.0	0.0	2.9	1.6	2.7	1.8	0.0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37.28^{***}$ df=10			$\chi^2=226.68^{***}$ df=10				$\chi^2=19.03^*$ df=10		

\* p<.05, \*\* p<.01, \*\*\* p<.001

<표 5> 브래지어 착용여부 (단위:%)

구분	전체 n=520	거주지			학년			전체 n=426	체형		
		군산 n=94	전주 n=116	대전 n=310	4학년 n=144	5학년 n=147	6학년 n=229		마른 n=103	보통 n=218	비만 n=105
①착용	40.2	29.8	25.9	48.7	6.3	32.7	66.4	44.8	32.7	47.3	51.4
②미착용	59.8	70.2	74.1	51.3	93.8	67.3	33.6	55.2	67.3	52.7	48.6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23.49^{***}$ df=2			$\chi^2=137.80^{***}$ df=2				$\chi^2=8.58^*$ df=2		

\* p<.05, \*\* p<.01, \*\*\* p<.001

2)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표 6>  
과 같다.

지하고 있으며, 기타 응답으로 “아이들이 놀려서”가 7.1%, “착용이 쑥스러워서”가 5.6%, “답답해서”가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전체 n=338	거주지			학년			전체 n=255	체형		
		군산 n=88	전주 n=92	대전 n=158	4학년 n=150	5학년 n=107	6학년 n=81		마른 n=76	보통 n=123	비만 n=56
①유방이 안나와서	36.1	37.5	33.7	36.7	47.3	29.0	24.7	36.9	38.2	38.2	32.1
②착용이 부끄러워서	5.6	5.7	3.3	7.0	3.3	4.7	11.1	6.3	6.6	5.7	7.1
③구입이 부끄러워서	0.3	0.0	1.1	0.0	0.0	0.9	0.0	0.4	0.0	0.8	0.0
④착용이 번거로워서	2.4	2.3	3.3	1.9	2.0	2.8	2.5	2.4	1.3	4.1	0.0
⑤끈이 내려와서	0.9	0.0	3.3	0.0	2.0	0.0	0.0	0.0	0.0	0.0	0.0
⑥아이들이 놀려서	7.1	9.1	5.4	7.0	6.0	8.4	7.4	7.8	1.3	5.7	21.4
⑦답답해서	5.0	6.8	8.7	1.9	2.0	7.5	7.4	3.9	2.6	3.3	7.1
⑧같이입기 불편해서	0.3	1.1	0.0	0.0	0.0	0.9	0.0	0.4	1.3	0.0	0.0
⑨유방이 조금나와서	42.3	37.5	41.3	45.6	37.3	45.8	0.0	42.0	48.7	42.3	32.1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23.62$ df=16			$\chi^2=25.52$ df=16				$\chi^2=29.29^{**}$ df=16		

\* p<.05, \*\* p<.01, \*\*\* p<.001

전체집단의 브래지어 미착용 이유는 “조금 나와서”가 42.3%, “유방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가 36.1%로 두 응답이 전체의 78.4%를 차

거주지역별, 학년별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형별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마른체형은 조금 나와서(48.7%)> 아직 안 나와(38.2%)> 착용이 썩스러워서(6.6%)> 답답해서(2.6%) 등의 순이며, 보통체형은 조금 나와서(42.3%)> 아직 안 나와서(38.2%)> 아이들이 놀려서= 착용이 썩스러워서(5.7%)> 답답해서(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체형은 아직 안 나와서=조금나와서(32.1%)> 아이들이 놀려서(21.4%)> 착용이 썩스러워서=답답해서(7.1%)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는 <표 7>과 같다.

<표 7>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

(단위:%)

문항	구분	거주지			학년			전체 n=178	체형			
		전체 n=196	군산 n=27	전주 n=34	대전 n=135	4학년 n=3	5학년 n=44		6학년 n=149	마른 n=28	보통 n=102	비만 n=48
①습관적으로		5.1	3.7	2.9	5.9	0.0	4.5	5.4	4.5	7.1	2.9	6.3
②어른의 권유로		12.8	11.1	17.6	11.9	33.3	9.1	13.4	13.5	7.1	13.7	16.7
③친구들이 하나까		3.6	7.4	0.0	3.7	0.0	4.5	3.4	3.4	3.6	2.0	6.3
④유방진동방지		16.8	7.4	8.8	20.7	0.0	13.6	18.1	16.9	3.6	18.6	12.5
⑤젖꼭지 비침 방지		6.1	3.7	5.9	6.7	0.0	6.8	6.0	6.7	17.9	7.8	4.2
⑥가슴형태드러남방지		10.7	3.7	14.7	11.1	66.7	13.6	8.7	11.2	7.1	12.7	6.3
⑦가슴받쳐주기위해		12.8	22.2	17.6	9.6	0.0	20.5	10.7	12.4	14.3	6.9	20.8
⑧가슴이 처질까봐		23.0	37.0	23.5	20.0	0.0	15.9	25.5	21.3	17.9	24.5	18.8
⑨가슴이 예뻐지니까		9.2	3.7	8.8	10.4	0.0	11.4	8.7	10.1	14.3	10.8	8.3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18.77$ df=16			$\chi^2=15.30$ df=16				$\chi^2=14.66$ df=16		

\* p<.05, \*\* p<.01, \*\*\* p<.001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는 거주지, 학년, 체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전체 집단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를 응답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슴이 처질까봐(23.0%)> 유방 진동방지(16.8%)> 어른의 권유로=가슴을 받쳐주기 위해(12.8%)> 가슴형태 드러남 방지(10.7%)> 가슴이 예뻐지니까(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형 집단의 브래지어 착용이유를 보면 가슴이 처질까봐(21.3%)> 유방진동방지(16.9%)> 어른의 권유로(13.5%)> 가슴을 받쳐주기 위해(12.4%)> 가슴형태의 드러남 방지(11.2%)> 가슴이 예뻐지니까(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현재 착용중인 브래지어 유형

현재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유형을 거주지, 학년, 체형별로 <표 8>에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착용 브래지어 유형을 보면 탱크탑형(29.5%)> 몰드형(28.5%)> 사춘기소녀용(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거주지역별 착용중인 브래지어에는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학년별로 착용중인 브래지어의 형태에도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체형별로도 현재 착용중인 브래지어 형태에도 통계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전체 체형 집단에서의 착용비율은 거주지역 및 학년 전체 집단의 착용비율과 거의 동

일하게 나타났다.

5)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한 시기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한 시기를 거주지, 학년, 체형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거주지역별, 학년별, 체형별로 브래지어의 착용시기에는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먼저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거주지별, 학년별로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한 시기를 보면 어른이 권유해서(40.9%)> 유방이 튀어 나오면서(23.6%)> 젖꼭지가 옷위로 드러나면서=유방이 흔들리면서(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형집단의 브래지어 처음 착용시기도 별로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한 시기를 보면

<표 8> 현재 착용중인 브래지어 형태

(단위:%)

구분	전체 n=200	거주지			학년			전체 n=176	체형		
		군산 n=27	전주 n=33	대전 n=140	4학년 n=4	5학년 n=44	6학년 n=152		마른 n=26	보통 n=104	비만 n=46
①패드형	5.5	0.0	6.1	6.4	0.0	6.8	5.3	5.5	10.3	6.7	0.0
②물드형	28.5	63.0	33.3	20.7	0.0	20.5	31.6	26.4	31.0	26.0	24.5
③뱅크탑형	29.5	7.4	30.3	33.6	75.0	45.5	23.7	29.7	17.2	35.6	24.5
④랩형	1.0	0.0	3.0	0.7	0.0	0.0	1.3	1.1	0.0	1.0	2.0
⑤데이프형	4.5	7.4	0.0	5.0	0.0	4.5	4.6	4.9	6.9	3.8	6.1
⑥벨트형	1.5	0.0	3.0	1.4	0.0	0.0	2.0	1.6	0.0	1.0	4.1
⑦와이어형	8.5	7.4	3.0	10.0	0.0	2.3	10.5	9.3	6.9	8.7	12.2
⑧사춘기소녀용	15.0	11.1	15.2	15.7	25.0	15.9	14.5	15.4	17.2	10.6	24.5
⑨블룸 업형	6.0	3.7	6.1	6.4	0.0	4.5	6.6	6.0	10.3	6.7	2.0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31.07$ df=16			$\chi^2=19.86$ df=16				$\chi^2=18.81$ df=16		

\* p<.05, \*\* p<.01, \*\*\* p<.001

<표 9>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한 시기

(단위:%)

구분	전체 n=203	거주지			학년			전체 n=184	체형		
		군산 n=31	전주 n=31	대전 n=142	4학년 n=4	5학년 n=44	6학년 n=155		마른 n=30	보통 n=103	비만 n=51
①유방이 튀어나오면서	23.6	18.5	14.7	26.8	50.0	31.8	20.6	24.5	33.3	22.3	23.5
②젖꼭지가 옷위로 드러나면서	17.7	3.7	26.5	18.3	25.0	18.2	17.4	17.9	16.7	21.4	11.8
③유방이 흔들리면서	17.7	14.8	20.6	17.6	0.0	20.5	17.4	17.4	16.7	17.5	17.6
④어른이 권유해서	40.9	63.0	38.2	37.3	25.0	29.5	44.5	40.2	33.3	38.8	47.1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11.51$ df=6			$\chi^2=6.65$ df=6				$\chi^2=3.97$ df=6		

\* p<.05, \*\* p<.01, \*\*\* p<.001

어른이 권유해서(40.2%)> 유방이 튀어 나오면서(24.5%)> 젖꼭지가 옷위로 드러나면서(17.9%)> 유방이 흔들리면서(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대부분의 착용시기가 착용자 자신의 의지라기 보다는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 “유방이 흔들리면서” 브래지어를 착용했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은 브래지어 착용시기가 제 때 보다 늦은 경우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6) 브래지어 착용시간

브래지어 착용시간을 거주지, 학년, 체형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거주지별, 학년별 브래지어 착용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착용 시간을 보면 24시간 착용(73.3%)> 잠잘때를 제외하고 착용(12.8%)> 외출시 착용(11.8%)> 체육시간만 착용(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형별 브래지어 착용시간에도 통계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전체 체형 집단의 착용시간에도 거주지, 학년의 전체 응답자의 착용시간과 같은 순위로 착용시간이 나타나 이 결과로 보면 초등학교 대부분의 브래지어 착용이 습관적이고 지속적인임을 알 수 있다.

7)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거주

지, 학년, 체형별로 검토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등 브래지어 착용 경험이 없어 이물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10> 브래지어 착용시간

(단위:%)

구분	전체 n=195	거주지			학년			전체 n=176	체형		
		군산 n=24	전주 n=30	대전 n=141	4학년 n=3	5학년 n=42	6학년 n=150		마른 n=29	보통 n=99	비만 n=48
①24시간	73.3	79.2	63.3	74.5	33.3	69.0	75.3	73.3	65.5	76.8	70.8
②잠잘 때 제외	12.8	8.3	16.7	12.8	66.7	11.9	12.0	13.1	17.2	11.1	14.6
③외출시	11.8	12.5	13.3	11.3	0.0	14.3	11.3	11.9	17.2	10.0	12.5
④체육시간만	2.1	0.0	6.7	1.4	0.0	4.8	1.3	1.7	0.0	2.0	2.1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4.64$ df=6			$\chi^2=7.07$ df=6				$\chi^2=3.16$ df=6		

\* p<.05, \*\* p<.01, \*\*\* p<.001

<표 11>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구분	전체 n=57	거주지			학년			전체 n=52	체형		
		군산 n=7	전주 n=14	대전 n=36	4학년 n=3	5학년 n=16	6학년 n=38		마른 n=10	보통 n=24	비만 n=18
①답답해서	40.4	28.6	50.0	38.9	0.0	37.5	44.7	40.4	60.0	33.3	38.9
②피부가 가려워서	24.6	28.6	7.1	30.6	33.3	18.8	26.3	25.0	30.0	25.0	22.2
③위치가 틀어져서	1.8	0.0	7.1	0.0	0.0	0.0	2.6	1.9	0.0	4.2	0.0
④덥게 느껴져서	5.3	0.0	14.3	2.8	0.0	6.3	5.3	4.8	0.0	8.3	5.6
⑤착용한 표시가 나서	5.3	0.0	14.3	2.8	0.0	18.8	0.0	3.8	0.0	4.2	5.6
⑥아이들이 놀려서	14.0	28.6	14.3	16.7	66.7	18.8	7.9	15.4	10.0	12.5	22.2
⑦끈이 내려와서	7.0	14.3	0.0	8.3	0.0	10.5	0.0	5.8	0.0	8.3	5.6
⑧부끄러워서	1.8	0.0	7.1	0.0	0.0	0.0	2.6	1.9	0.0	4.2	0.0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21.93$ df=14			$\chi^2=20.35$ df=14				$\chi^2=8.92$ df=14		

\* p<.05, \*\* p<.01, \*\*\* p<.001

거주지별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의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년별로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도 통계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집단의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답답해서(40.4%)>피부가 가려워(24.6%)>아이들이 놀려서(14.0%)> 끈이 내려와서(7.0%)> 덥게 느껴서=착용한 표시가 나서(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형별로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도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체형 집단의 미착용 이유의 순위는 거주지별, 학년별 전체 집단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즉, 초등학교 여학생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답답하고, 피부가 가려운

8) 브래지어 구입자

브래지어 구입자를 거주지, 학년, 체형별로 나누어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거주지별 브래지어 구입에는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학년별 브래지어의 구입에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집단의 브래지어 구입 상황을 보면 엄마와 함께 구입(45.2%)> 엄마가 구입(43.6%)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별 브래지어 구입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체 체형 집단의 브래지어 구입 상황도 거주지, 학년의 응답자수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브래지어 구입시 의사 결정에 착용자의 어머니의 의견이 크게



<표 12> 브래지어의 구입

(단위:%)

문항	구분	전체 n=188	거주지			학년			전체 n=169	체형		
			군산 n=25	전주 n=32	대전 n=131	4학년 n=1	5학년 n=42	6학년 n=145		마른 n=26	보통 n=96	비만 n=47
①본인		2.1	0.0	0.0	3.1	0.0	2.4	2.1	2.4	3.8	2.1	2.1
②엄마와 함께		45.2	56.0	25.0	48.1	100.0	54.8	42.1	47.9	65.4	43.8	46.8
③언니와 함께		2.1	0.0	3.1	2.3	0.0	0.0	2.8	2.4	3.8	2.1	2.1
④친구와 함께		2.1	0.0	9.4	0.8	0.0	2.4	2.1	1.8	3.8	1.0	2.1
⑤엄마		43.6	44.0	56.3	40.5	0.0	40.5	44.8	40.2	19.2	43.8	44.7
⑥언니		1.1	0.0	3.1	0.8	0.0	0.0	1.4	1.2	0.0	1.0	2.1
⑦물려받음		1.6	0.0	3.1	1.5	0.0	0.0	2.1	1.8	0.0	3.1	0.0
⑧아빠		1.6	0.0	0.0	2.3	0.0	0.0	2.1	1.8	3.8	2.1	0.0
⑨온가족		0.5	0.0	0.0	0.8	0.0	0.0	0.7	0.6	0.0	1.0	0.0
총응답자		100.0	13.3	17.0	69.7	0.5	22.3	77.1	100.0	15.4	56.8	27.8
유의수준			$\chi^2=22.17$ df=16			$\chi^2=9.49$ df=16				$\chi^2=14.87$ df=16		

\* p<.05, \*\* p<.01, \*\*\* p<.001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착용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9) 브래지어 구입시 중요시 하는 기준

브래지어 구입시 중요시 하는 기준은 <표 13>과 같다.

이 설문항목의 5점 평가 척도의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는 그렇지 않다, "3"은 그저 그렇다, "4"는 그런 편이다, "5"는 정말 그렇다에 해당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설문 문항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편안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이 동작편이> 치수 > 피부감촉> 땀 흡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거주지별로 보면 상표와 장식의 중요성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표의 경우는 군산과 전주시역 거주자의 유의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으나 대전 지역 거주자가 군산, 전주 지역에 비해 상표를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식의 경우도 군산과 대전지역 거주자가 전주시역 거주자보다 장식성을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나 평균점수가 3이하로 장식 요인은 브래지어 구입시 큰 기준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학년별 브래지어 구입시 중요 기준에서는 가격, 치수, 디자인, 편안함, 피부감촉, 동작편

이에 집단간 차이가 인정되었다. 가격은 6학년과 4학년이 5학년보다 가격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치수는 6학년과 5학년집단이 4학년보다 치수를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5, 6학년은 치수가 상당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은 5학년과 6학년 집단이 4학년보다 중시하는 경향이며 6학년과 5학년의 통계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편안함은 5학년 집단에서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으나 6학년과의 통계적 차이는 없다. 피부감촉은 5학년과 6학년에서 브래지어 구입시 보다 중요시하는 요인이며, 동작 편이성도 5학년과 6학년이 4학년보다 브래지어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보인다.

체형별 브래지어 구입시 중요시 하는 요인은 색상, 장식, 심미성에서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다. 마른 체형과 보통체형이 비만체형보다 색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며 장식 및 심미성 또한 마른체형과 보통체형이 비만체형보다 이들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10) 브래지어 만족도

(1)치수 관련 만족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치수관련 만족도를 보면 "컵치수를 모름"과 "가슴이 나올 때 맞는 브라가 없음", "신축성이 적다"의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치수 만족도를 보면 "밀가슴둘레가 크다"에서만 지역간의 차이가 인정되었

<표 13> 브래지어 구입시 중요기준

문항	구분	전체평균 (s.d)	거주지별			F-value	다중비교	학년별			F-value	다중비교	체형별			F-value	다중비교
			군산 ①	전주 ②	대전 ③			4 ①	5 ②	6 ③			마른 ①	보통 ②	비만 ③		
①가려		2.71 (1.19)	2.54 (1.17)	2.74 (1.29)	2.73 (1.18)	0.29		2.50 (0.71)	2.25 (1.04)	2.85 (1.21)	4.41*	③=①>②	2.97 (1.13)	2.78 (1.19)	2.49 (1.23)	1.63	
②상표		2.61 (1.23)	3.19 (1.23)	2.62 (1.28)	2.49 (1.19)	3.66*	①=②>③	3.00 (2.00)	2.58 (1.30)	2.61 (1.20)	0.16					1.56	
③치수		4.24 (0.97)	4.29 (1.12)	4.25 (0.98)	4.23 (0.94)	0.05		2.67 (1.53)	4.15 (1.04)	4.30 (0.91)	4.57*	③=②>①	4.31 (0.93)	4.31 (0.94)	4.07 (1.06)	1.08	
④색상		3.28 (1.35)	3.69 (1.36)	3.27 (1.33)	3.20 (1.34)	1.47		2.50 (0.71)	3.05 (1.43)	3.35 (1.25)	1.20		3.53 (1.28)	3.46 (1.31)	2.73 (1.33)	5.77**	①=②>③
⑤디자인		3.23 (1.30)	3.38 (1.35)	3.21 (1.27)	3.21 (1.31)	0.16		1.67 (0.58)	2.95 (1.40)	2.48 (1.36)	3.85*	③=②>①	3.38 (1.23)	3.35 (1.23)	2.85 (1.32)	2.69	
⑥유행		2.40 (1.31)	2.92 (1.47)	2.44 (1.19)	2.30 (1.30)	2.29		1.50 (0.71)	2.17 (1.12)	4.56 (0.82)	1.38		2.53 (1.33)	2.51 (1.33)	2.02 (1.09)	2.45	
⑦편안함		4.48 (0.94)	4.54 (1.02)	4.32 (0.91)	4.50 (0.93)	0.57		3.33 (0.58)	4.26 (1.22)	3.77 (1.14)	4.22*	③=②>①	4.34 (1.08)	4.48 (0.93)	4.56 (0.92)	0.47	
⑧바느질		3.71 (1.21)	4.12 (0.91)	3.41 (1.31)	3.70 (1.23)	2.51		2.67 (1.53)	3.57 (1.45)	2.31 (1.27)	1.55		3.80 (1.21)	3.73 (1.20)	3.77 (1.28)	0.05	
⑨장식		2.26 (1.24)	2.96 (1.46)	2.03 (0.98)	2.18 (1.22)	5.00**	①=③>②	2.67 (2.08)	2.02 (1.09)	4.04 (1.12)	0.91		2.50 (2.50)	2.36 (1.28)	1.80 (1.00)	4.06*	①=②>③
⑩땀흡수		3.97 (1.13)	4.35 (1.13)	3.68 (1.22)	3.98 (1.10)	2.61		4.00 (1.41)	3.57 (1.45)	4.19 (1.05)	1.11		4.17 (1.10)	4.08 (1.10)	3.83 (1.17)	1.07	
⑪피부감촉		4.19 (1.06)	4.15 (1.29)	3.94 (1.20)	4.26 (0.97)	1.27		2.67 (2.08)	4.30 (0.95)	4.51 (0.75)	3.41*	②=③>①	4.30 (0.92)	4.21 (1.05)	4.25 (1.04)	0.11	
⑫동작편이		4.45 (0.82)	4.44 (0.87)	4.29 (0.91)	4.49 (0.79)	0.77		3.00 (1.00)	4.34 (0.94)	2.89 (1.44)	5.78**	③=②>①	4.39 (0.74)	4.47 (0.83)	4.48 (0.85)	0.16	
⑬심미성		2.81 (1.39)	2.81 (1.13)	2.88 (1.57)	2.80 (1.33)	0.05		2.00 (1.00)	2.58 (1.16)	2.66 (1.10)	1.38		3.33 (1.54)	2.86 (1.29)	2.38 (1.36)	4.80**	①=②>③

\*p<.05, \*\*p<.01, \*\*\* p<.001

다. 군산과 전주 지역 학생의 치수 불만이 대전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치수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체형별 치수 관련 만족도에서도 “컵치수를 모른다”를 제외하고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마른체형과 보통체형의 응답자가 비만체형의 응답자보다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컵치수를 유의적으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내구성 관련 만족도

브라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평균 만족점수는 모두 “3”이하로 불만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내구성에 대한 만족 점수에는 “어깨끈의 솔이 풀린다”, “혹과 고리가 빠진다”, “와이어가 잘 빠진다”, “바느질 상태가 엉성하다”의 문항에서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이 네 문항에 대해서 군산 지역 학생들의 불만 점수가 대전, 전주지역 학생의 불만 점수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학년별 내구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레이스가 망가진다”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4학년의 불만점수가 5, 6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별 내구성 만족도에는 집단간 만족점

수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 피부 감촉 관련 만족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부감촉과 관련된 만족도를 보면 “땀 흡수가 좋지 않다”>“가렵다”>“혹과 고리의 느낌이 좋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거주지별로 피부감촉과 관련된 만족도를 보면 “혹과 고리의 느낌이 좋지 않다”, “앞중심이 딱딱하다”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군산, 전주지역 거주자의 불만점수가 높고, 대전 지역 거주자의 불만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피부 감촉 만족도와 체형별 피부 감촉 만족도에서는 집단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디자인 관련 만족도

디자인 관련만족도를 거주지별, 학년별, 체형별로 본 결과는 <표 17>과 같다.

먼저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평균 만족점수를 보면 “착용표시가 걸로 안 드러나면 좋겠다”에 비교적 높은 불만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항목으로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 “색상이 다양하지 않다”,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다”의 순으로 불만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치수 관련 만족도

문항	구분	전체 평균 (s.d)	거주지별			F-value	다중비교	학년별			F-value	다중비교	계형별			F-value	다중비교
			군산 ①	전주 ②	대전 ③			4 ①	5 ②	6 ③			마른 ①	보통 ②	비만 ③		
① 밑가슴 크		2.85 (1.11)	3.36 (1.19)	2.85 (1.06)	2.76 (1.09)	3.12*	①=②>③	2.67 (0.58)	2.75 (1.22)	2.89 (1.44)	0.31		2.87 (1.20)	2.84 (1.10)	2.85 (1.18)	0.01	
② 컷이 크다		2.61 (1.10)	2.81 (1.13)	2.44 (0.95)	2.61 (1.13)	0.81		2.67 (0.58)	2.43 (1.13)	2.66 (1.10)	0.73		2.53 (1.25)	2.63 (1.11)	2.52 (0.98)	0.19	
③ 신축성이 좋다		3.37 (1.25)	3.44 (1.23)	3.30 (1.13)	3.38 (1.29)	0.09		3.00 (1.00)	3.44 (1.31)	3.36 (1.24)	0.21		3.20 (1.24)	3.37 (1.29)	3.43 (1.21)	0.30	
④ 치수가 다양하지 못함		3.03 (1.30)	3.19 (1.55)	2.81 (1.35)	3.04 (1.24)	0.66		3.00 (1.00)	2.95 (1.35)	3.05 (1.30)	0.09		2.97 (1.38)	3.07 (1.29)	2.94 (1.24)	0.19	
⑤ 견뢰한 모		3.29 (1.35)	3.15 (1.41)	2.97 (1.38)	3.39 (1.33)	1.40		4.33 (0.58)	3.45 (1.45)	3.22 (1.33)	1.39		3.00 (1.44)	3.47 (1.26)	3.13 (1.42)	1.99	
⑥ 컷이 수		3.56 (1.35)	3.77 (1.37)	3.27 (1.57)	3.59 (1.29)	1.09		2.67 (1.15)	3.48 (1.39)	3.60 (1.35)	0.81		3.66 (1.34)	3.69 (1.31)	3.11 (1.42)	3.11*	②=①>③
⑦ 가슴이 땀이 나지 않는다		3.44 (1.40)	3.52 (1.64)	3.67 (1.43)	3.38 (1.35)	0.61		3.67 (1.53)	3.41 (1.42)	3.45 (1.40)	0.05		3.27 (1.36)	3.65 (1.33)	3.21 (1.46)	2.10	
⑧ 맞는 치수		2.72 (1.43)	3.08 (1.67)	2.72 (1.42)	2.65 (1.39)	0.98		3.67 (0.58)	2.67 (1.51)	2.71 (1.41)	0.68		2.47 (1.43)	2.82 (1.45)	2.65 (1.40)	0.76	
⑨ 몸이 커지지 않는다		2.19 (1.25)	2.35 (1.44)	2.09 (1.01)	2.18 (1.27)	0.31		3.00 (1.41)	2.18 (1.32)	2.17 (1.22)	0.64		2.37 (1.45)	2.24 (1.26)	2.10 (1.21)	0.40	
⑩ 여립 단수가 적다		2.73 (1.35)	2.64 (1.19)	2.52 (1.42)	2.80 (1.37)	0.66		3.00 (1.41)	2.41 (1.21)	2.82 (1.39)	1.66		3.07 (1.19)	2.65 (1.35)	2.70 (1.43)	1.10	

\* p<.05, \*\* p<.01, \*\*\* p<.001

<표 15> 내구성 관련 만족도

문항	구분	전체 평균 (s.d)	거주지별			F-value	다중비교	학년별			F-value	다중비교	계형별			F-value	다중비교
			군산 ①	전주 ②	대전 ③			4 ①	5 ②	6 ③			마른 ①	보통 ②	비만 ③		
① 보푸라기		2.40 (1.35)	2.56 (1.26)	2.65 (1.45)	2.31 (1.33)	1.02		3.00 (1.73)	2.28 (1.45)	2.43 (1.21)	0.50		2.52 (1.67)	2.46 (1.32)	2.23 (1.29)	0.57	
② 레이스가		2.10 (1.21)	2.29 (1.20)	2.06 (1.18)	2.08 (1.23)	0.34		2.67 (1.15)	1.56 (0.80)	2.25 (1.28)	6.04**	①>③=②	2.22 (1.55)	2.23 (1.24)	1.83 (0.99)	1.80	
③ 색이 바		2.29 (1.26)	2.56 (1.36)	2.27 (1.23)	2.24 (1.29)	0.67		3.00 (1.00)	1.93 (1.10)	2.38 (1.30)	2.62		2.50 (1.56)	2.27 (1.22)	2.21 (1.22)	0.46	
④ 어깨 끈		2.07 (1.21)	2.72 (1.34)	1.97 (1.31)	1.98 (1.18)	4.22**	①>③=②	2.33 (0.58)	1.86 (1.19)	2.13 (1.28)	0.90		2.24 (1.48)	2.15 (1.21)	1.68 (0.91)	2.98	
⑤ 후과 리가		1.88 (1.03)	2.56 (1.39)	1.72 (0.85)	1.78 (0.95)	6.75**	①>③=②	2.33 (0.58)	1.76 (1.02)	1.90 (1.05)	0.61		1.96 (1.17)	1.88 (1.01)	1.77 (1.05)	0.31	
⑥ 와이어가		1.92 (1.18)	2.24 (1.36)	1.35 (0.49)	1.99 (1.23)	4.89**	①>②=③	1.67 (0.58)	1.72 (1.02)	1.98 (1.23)	0.81		2.29 (1.46)	1.88 (1.20)	1.83 (1.08)	1.32	
⑦ 브래지어		1.90 (1.06)	2.20 (1.15)	1.75 (0.95)	1.88 (1.06)	1.36		2.33 (0.58)	1.72 (1.05)	1.94 (1.06)	0.99		2.20 (1.35)	1.84 (0.94)	1.81 (1.01)	1.41	
⑧ 바느질		1.93 (1.09)	2.40 (1.29)	1.66 (0.83)	1.91 (1.09)	3.42*	①>②=③	2.33 (0.58)	1.65 (0.92)	2.01 (1.14)	1.97		2.21 (1.35)	1.90 (1.06)	1.77 (0.96)	1.33	

\* p<.05, \*\* p<.01, \*\*\* p<.001

<표 16> 피부 감촉 관련 만족도

문항	구분	전체 평균 (s.d)	거주지별			F-value	다중비교	학년별			F-value	다중비교	계형별			F-value	다중비교
			군산 ①	전주 ②	대전 ③			4 ①	5 ②	6 ③			마른 ①	보통 ②	비만 ③		
① 땀 흡수가		3.04 (1.21)	3.30 (1.43)	3.21 (1.19)	2.95 (1.17)	1.28		3.67 (0.58)	2.81 (1.27)	3.09 (1.18)	1.28		3.17 (1.31)	2.93 (1.35)	3.13 (1.24)	0.71	
② 가렵다		2.68 (1.39)	2.52 (1.36)	3.00 (1.41)	2.64 (1.39)	1.11		3.33 (1.15)	2.63 (1.53)	2.69 (1.35)	0.36		2.93 (1.46)	2.65 (1.33)	2.77 (1.46)	0.50	
③ 후과 리의		2.57 (1.35)	3.12 (1.33)	2.88 (1.34)	2.39 (1.33)	4.24*	①=②>③	3.00 (1.00)	2.41 (1.38)	2.60 (1.35)	0.45		2.66 (1.70)	2.50 (1.25)	2.49 (1.31)	0.16	
④ 앉을 심이		2.45 (1.26)	2.79 (1.35)	2.91 (1.40)	2.28 (1.18)	4.41*	①=②>③	3.00 (1.00)	2.49 (1.44)	2.43 (1.32)	0.35		2.48 (1.34)	2.43 (1.13)	2.37 (1.31)	0.17	
⑤ 알레르기		1.91 (1.18)	2.42 (1.28)	1.91 (1.14)	1.81 (1.16)	2.72		2.33 (0.58)	1.78 (1.07)	1.93 (1.22)	0.47		2.00 (1.36)	1.89 (1.17)	1.83 (1.19)	0.16	
⑥ 피부 마		2.20 (1.29)	2.40 (1.44)	2.44 (1.21)	2.10 (1.27)	1.31		3.00 (1.00)	2.37 (1.57)	2.14 (1.19)	0.95		2.22 (1.28)	2.08 (1.18)	2.49 (1.50)	1.60	

\* p<.05, \*\* p<.01, \*\*\* p<.001

<표 17> 디자인 관련 만족도

구분 문항	전체 평균 (s.d)	거주지별			F- value	다중 비교	학년별			F- value	다중비교	체형별			F- value	다중비교
		군산 ①	전주 ②	대전 ③			4 ①	5 ②	6 ③			마른 ①	보통 ②	비만 ③		
		①색상이 다양하지 않음	2.89 (1.38)	3.32 (1.49)			2.79 (1.41)	2.83 (1.35)	1.42				2.33 (0.58)	2.65 (1.27)		
②색상이 세련되지 못함	2.20 (1.29)	3.44 (1.45)	2.67 (1.34)	2.88 (1.32)	2.53		2.33 (0.58)	2.44 (1.31)	3.07 (1.35)	3.96*	③>②=①	3.37 (1.50)	2.93 (1.33)	2.70 (1.23)	2.13	
③무늬 있는 브래지어 선호	2.31 (1.25)	2.16 (1.40)	1.97 (1.31)	2.22 (1.34)	0.48		2.00 (1.00)	2.19 (1.38)	2.17 (1.34)	0.03		2.49 (1.37)	2.36 (1.36)	1.66 (1.13)	5.37**	①=②>③
④디자인 다양하지 못함	2.94 (1.34)	3.20 (1.35)	2.75 (1.44)	2.93 (1.31)	0.79		3.00 (0.00)	2.56 (1.39)	3.05 (1.32)	2.27		3.62 (1.36)	2.93 (1.13)	2.45 (1.21)	6.80**	①>②>③
⑤디자인 이채롭 지못함	2.81 (1.23)	3.24 (1.23)	2.66 (1.33)	2.76 (1.20)	1.89		2.67 (0.58)	2.44 (1.31)	2.92 (1.23)	2.51		3.27 (1.34)	2.78 (1.16)	2.51 (1.28)	3.23*	①=②>③
⑥착용 감 편안 하다	3.83 (1.37)	3.54 (1.47)	4.19 (1.26)	3.80 (1.37)	1.68		4.00 (1.00)	3.65 (1.51)	3.88 (1.33)	0.48		2.21 (1.35)	1.90 (1.06)	1.77 (1.03)	0.23	

\* p<.05, \*\* p<.01, \*\*\* p<.001

거주지별 디자인 관련 만족도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해 집단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 디자인 관련 만족도에는 “색상이 세련되지 못하다”를 제외한 다른 문항에 대해 집단간 유의한 차가 인정되지 않아 6학년이 4, 5학년 보다 색상이 세련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별로 디자인 관련 만족도를 보면 “무늬 있는 브래지어를 하고 싶다”,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다”의 문항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고 이들 항목모두에서 마른체형의 불만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보통체형, 비만체형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착용감 관련 만족도

착용감 관련 만족도를 거주지별, 학년별, 체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전체 집단의 만족도를 보면 “가슴을 잘 받쳐준다”의 만족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운동시 유방의 진동을 막아준다”, “가슴을 모아준다”, 불만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어깨끈이 잘 흘러내린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착용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착용시 답답하다”, “뒷여밈이 불편하다”, “위치가 자꾸 틀어진다”, “운동시 가슴의 진동을 막아준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슴의 진동방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전 지역

거주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년별 착용감은 유의차가 없었고, 체형별 착용감 관련 만족도는 “가슴을 모아준다”를 제외한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마른체형과 비만체형이 보통체형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전체적 만족도

브래지어를 치수, 내구성, 촉감, 디자인, 착용감의 측면 모두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는 <표 19>와 같다.

전체적 만족도는 거주지별, 학년별, 체형별 유의차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체평균 점수는 “그저 그렇다”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11) 착용하는 브래지어의 치수

현재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치수 및 지도는 <표 20>과 같다.

전체 응답자수의 70.3%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치수를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자신의 브래지어 치수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75B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8.0%, 60AAA와 70AAA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각각 전체의 2.3%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브래지어 착용 치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 것은 대전 지역의 설문대상자수가 많아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학년별 브래지어 착용치수에는

<표 18> 착용감 관련 만족도

구분	전체 평균 (s.d)	거주지별			F-value	다중비교	학년별			F-value	다중비교	체형별			F-value	다중비교
		군산 ①	전주 ②	대전 ③			4 ④	5 ⑤	6 ⑥			마른 ①	보통 ②	비만 ③		
① 착용시 답답	2.80 (1.45)	3.12 (1.62)	3.41 (1.31)	2.59 (1.41)	5.23**	②=①>③	3.67 (0.58)	2.74 (1.63)	2.80 (1.41)	0.56		3.07 (1.65)	2.74 (1.41)	2.71 (1.49)	0.67	
② 가슴을 잘 받쳐줌	3.72 (1.08)	3.33 (1.09)	3.64 (1.17)	3.81 (1.06)	2.13		3.67 (1.15)	3.83 (0.99)	3.69 (1.12)	0.27		4.07 (1.10)	3.73 (0.97)	3.74 (1.22)	1.25	
③ 어깨 끈 불편	3.05 (1.41)	3.56 (1.58)	2.82 (1.38)	3.01 (1.37)	2.16		3.00 (1.41)	2.67 (1.49)	3.15 (1.38)	1.94		3.14 (1.38)	2.95 (1.41)	3.15 (1.41)	0.41	
④ 가슴을 편안하게 받쳐줌	3.44 (1.18)	3.64 (0.99)	3.33 (1.24)	3.43 (1.20)	0.19		4.33 (0.58)	3.30 (1.37)	3.46 (1.13)	1.17		3.86 (1.06)	3.27 (1.22)	3.50 (1.11)	3.06*	①=③>②
⑤ 호랑이 꼬리 모양이 있다	2.31 (1.35)	2.48 (1.36)	2.27 (1.31)	2.29 (1.37)	0.23		3.33 (1.15)	1.95 (1.21)	2.39 (1.37)	2.64		2.55 (1.50)	2.36 (1.34)	1.91 (1.18)	2.57	
⑥ 거드름이 많이 조임	2.09 (1.23)	2.21 (1.22)	2.44 (1.21)	1.99 (1.18)	2.02		3.00 (1.00)	2.00 (1.18)	2.10 (1.23)	0.94		2.21 (1.35)	1.99 (1.14)	2.13 (1.28)	0.45	
⑦ 앞부분이 불편	2.33 (1.26)	2.50 (1.47)	2.38 (1.28)	2.29 (1.22)	0.33		3.00 (1.00)	2.58 (1.30)	2.24 (1.23)	1.65		2.14 (1.30)	2.38 (1.24)	2.27 (1.28)	0.45	
⑧ 뒷면이 불편	2.62 (1.39)	3.29 (1.49)	2.76 (1.21)	2.46 (1.39)	4.00*	①=②>③	2.67 (0.58)	2.19 (1.24)	2.74 (1.42)	2.67		2.83 (1.65)	2.56 (1.35)	2.54 (1.30)	0.46	
⑨ 위치가 틀어짐	2.83 (1.42)	3.52 (1.42)	2.82 (1.38)	2.71 (1.40)	3.54*	①=②>③	3.00 (1.00)	2.65 (1.56)	2.88 (1.38)	0.47		3.00 (1.31)	2.80 (1.41)	2.87 (1.50)	0.23	
⑩ 가슴의 모양	3.58 (1.18)	3.08 (1.38)	3.24 (1.30)	3.76 (1.07)	5.35**	③>②=①	3.33 (1.15)	3.70 (1.26)	3.55 (1.16)	0.33		3.86 (0.83)	3.59 (1.16)	3.64 (1.28)	0.64	

\* p<.05, \*\* p<.01, \*\*\* p<.001

<표 19> 전체적 만족도

구분	전체 평균 (s.d)	거주지별			F-value	다중비교	학년별			F-value	다중비교	체형별			F-value	다중비교
		군산 ①	전주 ②	대전 ③			4 ④	5 ⑤	6 ⑥			마른 ①	보통 ②	비만 ③		
전체적으로 만족	3.11 (1.29)	2.64 (1.32)	3.19 (1.35)	3.18 (1.26)	1.95		3.33 (1.53)	3.16 (3.16)	3.09 (1.26)	0.09		3.36 (1.19)	3.15 (1.27)	2.96 (1.40)	0.82	

\* p<.05, \*\* p<.01, \*\*\* p<.001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체 집단의 착용치수를 보면 75A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치수 구간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체형별 브래지어 착용치수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전체 체형 집단의 착용치수는 거주지, 학년별 착용치수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냈으며 역시 60AAA에서 90B까지 전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사춘기 학생의 성장 특성을 나타내는 AAA컵 AA컵 이외에도 밑가슴 둘레 80과 85구간에서는 C컵도 관찰되어 유방의 성장이 성인여성의 것에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선호하는 브래지어의 소재

브래지어의 소재에 관한 선호도를 거주지, 학년, 체형별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브래지어의 소재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거주지, 학년별로 볼 때 전체의 39.6%가 소재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49.7%(소재를 알고 있는 대상자의 61%)가 순면을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스트레치성 소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볼 때 선호하는 브래지어 소재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양한 소재의 브래지어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고학년 집단일수록 브래지어 소재에 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체형별로 선호하는 브래지어에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13) 선호하는 브래지어 유형

착용하고 싶은 브래지어의 유형을 거주지별, 학년별, 체형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전체 집단의 선호 유형의 순위는 스포츠형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사춘기 소녀용과 블룸업형이 그 다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0> 착용하는 브래지어 치수

(단위:%)

문항	구분	전체 n=175	거주지			학년			전체 n=159	체형		
			군산 n=23	전주 n=29	대전 n=123	4학년 n=3	5학년 n=40	6학년 n=132		마른 n=24	보통 n=92	비만 n=43
60	AAA	2.3	0.0	0.0	3.3	0.0	2.5	2.3	2.5	0.0	4.3	0.0
	AA	1.7	0.0	0.0	2.4	66.7	0.0	0.8	1.9	0.0	2.2	2.3
	A	0.6	0.0	0.0	0.8	0.0	0.0	0.8	0.6	0.0	1.1	0.0
65	AA	1.1	0.0	0.0	1.6	0.0	2.5	0.8	1.3	4.2	1.1	0.0
	A	1.1	0.0	0.0	1.6	0.0	2.5	0.8	1.3	0.0	1.1	2.3
70	AAA	2.3	0.0	0.0	3.3	0.0	2.5	2.3	2.5	12.5	0.0	2.3
	AA	1.1	0.0	0.0	1.6	0.0	0.0	1.5	1.3	4.2	1.1	0.0
	A	1.7	0.0	0.0	2.4	0.0	5.0	0.8	1.9	0.0	2.2	2.3
	B	0.6	0.0	0.0	0.8	0.0	0.0	0.8	0.6	4.2	0.0	0.0
75	C	1.1	0.0	0.0	1.6	0.0	0.0	1.5	0.6	0.0	1.1	0.0
	AAA	0.6	0.0	0.0	0.8	0.0	0.0	0.8	0.6	4.2	0.0	2.3
	AA	2.3	0.0	3.4	2.4	0.0	2.5	2.3	2.5	0.0	3.3	2.3
	A	8.0	0.0	10.3	8.9	0.0	2.5	9.8	8.2	0.0	8.7	7.0
80	B	1.1	0.0	0.0	1.6	0.0	0.0	0.8	0.6	0.0	1.1	0.0
	A	1.1	0.0	0.0	1.6	0.0	0.0	1.5	1.3	8.3	0.0	2.3
	C	0.6	0.0	0.0	0.8	0.0	0.0	0.8	0.6	0.0	1.1	0.0
85	A	1.1	0.0	0.0	1.6	0.0	2.5	0.8	1.3	0.0	0.0	2.3
	C	1.1	4.3	0.0	0.8	0.0	2.5	0.8	1.3	0.0	1.1	2.3
	90B	0.6	0.0	0.0	0.8	0.0	0.0	0.8	.6	0.0	0.0	0.0
모름		70.3	95.7	86.2	61.8	33.3	75.0	69.7	68.6	33.3	70.7	72.1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89.01***$ df=38			$\chi^2=23.34$ df=38				$\chi^2=46.56$ df=38		

\* p<.05, \*\* p<.01, \*\*\* p<.001

<표 21> 소재 선호

(단위:%)

문항	구분	전체 n=169	거주지			학년			전체 n=153	체형		
			군산 n=22	전주 n=29	대전 n=118	4학년 n=3	5학년 n=39	6학년 n=127		마른 n=22	보통 n=86	비만 n=45
①순면		49.7	36.4	62.1	49.2	66.7	35.9	53.5	48.4	59.1	41.9	55.6
②PE		3.0	0.0	0.0	4.2	0.0	0.0	3.9	3.3	9.1	3.5	0.0
③면/PE		1.8	0.0	0.0	2.5	0.0	2.6	1.6	2.0	0.0	13.5	0.0
④스트레치소재		5.9	9.1	6.9	5.1	0.0	0.0	7.9	6.5	4.5	8.1	4.4
⑤모름		39.6	54.5	31.0	39.0	33.3	61.5	33.1	39.9	27.3	43.0	40.0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9.66$ df=8			$\chi^2=16.54*$ df=8				$\chi^2=9.72$ df=8		

\* p<.05, \*\* p<.01, \*\*\* p<.001

특히 불륨업형과 스트랩리스 형 등 성인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디자인의 선호도가 높았던 점이 주목된다.

거주지별 브래지어 선호 유형에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별 브래지어 선호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4학년은 전원이 사춘기 소녀용 브래지어를 선호하였으며 5학년은 탱크탑형

(21.4%)> 스포츠형(16.7%)> strapless형(14.3%)의 순이며, 6학년 집단은 스포츠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31.9%), 그 다음이 불륨업형(15.9%), 사춘기 소녀용(12.3) 브래지어의 순이다.

전체 체형에서 스포츠형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외의 디자인 선호 유형은 거주지별, 학년별 전체 집단과 같았으며, 체형별

선호 브래지어 유형에는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치수 보다 작은 것”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은 전체의 29.6%에 해당하고 있다.

<표 22> 착용하고 싶은 브래지어 유형

(단위:%)

구분	전체 n=183	거주지			학년			전체 n=166	체형		
		군산 n=24	전주 n=31	대전 n=128	4학년 n=3	5학년 n=42	6학년 n=138		마른 n=26	보통 n=94	비만 n=46
①strapless	9.8	16.7	9.7	8.6	0.0	14.3	8.7	9.6	15.4	8.5	8.7
②belt형	2.7	0.0	0.0	3.9	0.0	2.4	2.9	3.0	3.8	2.1	4.3
③앞여밈형	1.6	0.0	3.2	1.6	0.0	0.0	2.2	1.8	0.0	1.1	4.3
④밴드형	4.9	4.2	3.2	5.5	0.0	9.5	3.6	5.4	3.8	7.4	2.2
⑤팝형	0.5	0.0	0.0	0.8	0.0	0.0	0.7	0.6	0.0	1.1	0.0
⑥타이프형	2.2	4.2	3.2	1.6	0.0	2.4	2.2	2.4	3.8	2.1	2.2
⑦통형	1.1	0.0	6.5	0.0	0.0	2.4	0.7	1.2	0.0	0.0	4.3
⑧와이어형	3.3	4.2	0.0	3.9	0.0	0.0	4.3	3.0	7.7	2.1	2.2
⑨사춘기소녀용	13.1	4.2	6.5	14.8	100.0	7.1	12.3	13.3	11.5	13.8	13.0
⑩볼륨업형	13.1	12.5	6.5	14.8	0.0	4.8	15.9	13.9	19.2	14.9	8.7
⑪라운드형	3.8	4.2	6.5	3.1	0.0	4.8	3.6	3.6	3.8	3.2	4.3
⑫탱크탑형	6.6	16.7	6.5	4.7	0.0	21.4	2.2	5.4	0.0	5.3	8.7
⑬런닝형	7.1	4.2	16.1	5.5	0.0	11.9	5.8	7.8	3.8	7.4	10.9
⑭패드형	2.7	0.0	0.0	3.9	0.0	2.4	2.9	3.0	3.8	2.1	4.3
⑮스포츠형	27.9	29.2	32.3	26.6	0.0	16.7	31.9	25.9	23.1	28.7	21.7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33.74$ df=28			$\chi^2=54.93^{**}$ df=28				$\chi^2=20.61$ df=28		

\* p<.05, \*\* p<.01, \*\*\* p<.001

14) 대체 치수의 구입

만일 자신의 치수에 해당하는 브래지어가 없는 경우 어떤 치수의 브래지어를 구입하겠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학년별로 대체 치수 구입특성을 보면 4학년은 전원이 “치수보다 작은 것”을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며 5학년과 6학년은 “치수보다 큰 것”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해 압도적인 수가 큰 치

<표 23> 대체 치수의 구입

(단위:%)

구분	전체 n=179	거주지			학년			전체 n=161	체형		
		군산 n=23	전주 n=32	대전 n=124	4학년 n=3	5학년 n=42	6학년 n=134		마른 n=26	보통 n=91	비만 n=44
①치수보다 큰 것	70.4	78.3	65.6	70.2	0.0	71.4	71.6	70.8	57.7	72.5	75.0
②치수보다 작은 것	29.6	21.7	34.4	29.8	100.0	28.6	28.4	29.2	42.3	27.5	25.0
총응답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의수준		$\chi^2=1.07$ df=2			$\chi^2=7.43^*$ df=10				$\chi^2=2.67$ df=2		

\* p<.05, \*\* p<.01, \*\*\* p<.001

거주지별, 학년별, 체형별로 대체 치수 구입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른 차이만이 인정되었다. 전체 응답자중 70.4%가 “치수보다 큰 것”을 구입할 예정이며,

수를 사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자료는 유방이 성장기에 있는 사춘기 소녀의 특성상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전체 체형집단의 대체 치수선호도 거주지

별, 학년별 응답자의 설문 결과와 같았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북과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560명을 대상으로 브래지어의 착용실태를 조사하여 착용감과 적합성이 우수한 초등학생용 브래지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1. 성적 성숙도

대도시일수록 생리를 빨리 시작하며 생리의 시작은 군산은 12세, 전주는 11세 대전은 12세와 11세의 순으로 관찰되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만 11세 이하의 나이에 유방이 나오기 시작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증가에 따른 유방의 돌출을 보면 4학년은 전체의 63.3%, 5학년 집단은 85.4%, 6학년 집단은 전체의 89.7%가 이미 유방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 2. 브래지어 착용 실태

###### 1) 브래지어 착용여부

브래지어 착용율을 거주지별로 보면 군산은 전체의 29.8%, 전주는 25.9%, 대전은 48.7%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학년별 착용율을 보면 4학년은 6.3%, 5학년은 32.7%, 6학년은 66.4%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별 착용율을 보면 마른 체형의 32.7%, 보통체형의 47.3%, 비만체형의 51.4%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전체 집단의 브래지어 미착용 이유는 "조금 나와서"가 42.3%, "유방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가 36.1%로 두 응답이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응답으로 "아이들이 놀려서"가 7.1%, "착용이 싫스러워서"가 5.6%, "답답해서"가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

전체 집단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

를 응답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슴이 처질까봐, 유방 진동방지, 어른의 권유로, 가슴을 받쳐주기 위해, 가슴형태 드러남 방지, 가슴이 예뻐지니까의 순으로 나타나 성인여성과 마찬가지로 유방의 하수와 방진 등의 기능성에 역점을 두고 착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현재 착용중인 브래지어 형태

전체 응답자의 착용 브래지어 유형을 보면 탱크탑형(29.5%), 몰드형(28.5%), 사춘기소녀용(15.0%), 기타 유형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착용 브래지어 유형의 44.5%만이 성장중에 있는 유방의 형태에 적합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다. 거주지역별 착용중인 브래지어에는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학년별, 체형별로도 착용중인 브래지어의 형태에는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 5)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한 시기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거주지별로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한 시기를 보면 타인의 권유로, 유방이 튀어나오면서, 찢꼭지가 옷위로 드러나면서=유방이 흔들리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 6) 브래지어 착용시간

전체 응답자의 브래지어 착용시간을 보면 24시간착용 73.3%, 잠잘 때를 제외하고 착용 12.8%, 외출시에만 착용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거주지별, 학년별, 체형별 브래지어 착용시간에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7)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

전체집단의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답답해서(40.4%), 피부가 가려워서(24.6%), 아이들이 놀려서(14.0%)의 순이다. 거주지별, 학년별, 체형별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의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 8) 브래지어 구입자 및 구입시 중요시하는 기준

전체집단의 브래지어 구입자를 보면 엄마와 함께 구입(45.2%), 엄마가 구입(43.6%)이 절대 다수이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유행(4.48)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이 동작편이>



치수> 피부감촉> 땀흡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학년별, 체형별 브래지어 구입에 는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 9) 브래지어 만족도

치수관련 만족도를 보면 “컵치수를 모름” 과 “가슴이 나올 때 맞는 브라가 없음”, “신축 성이 적다”의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치수 만족도를 보면 “밀가슴둘레 가 크다”에서만 지역간의 차이가 인정되었으 며 군산과 전주 지역 학생의 치수 불만이 대 전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내구성에 대한 만족 점수에는 “어깨 끈의 울이 풀린다”, “혹과 고리가 빠진 다”, “와이어가 잘 빠진다”, “바느질 상태가 영 성하다”의 문항에서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었 으며 군산 지역 학생들의 불만 점수가 대전, 전주시역 학생의 불만 점수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학년별 내구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레이스가 망가진다”, “연결고리나 혹이 망가 진다”에서 4학년의 불만점수가 5, 6학년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감촉과 관련된 만족도를 보면 “땀 흡 수가 좋지 않다”>“가렵다”>“혹과 고리의 느낌 이 좋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혹과 고 리의 느낌이 좋지 않다”와 “앞중심이 딱딱하 다”의 문항에 대해 군산, 전주시역 거주자에 비해 대전 지역 거주자의 불만도가 유의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체형별 피 부 감촉 만족도에서는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디자인 관련 만족도를 먼저 전체집단을 대 상으로 보면 “착용표시가 겉으로 드러난다”에 비교적 높은 불만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착용 표시가 겉으로 드러난다”의 문항에 대해 6학 년의 불만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디자 인의 다양성, 세련성 문항에 대해서는 마른 체 형과 보통 체형의 불만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 집단의 착용감 만족도를 보면 “가슴 을 잘 받쳐준다”가 만족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운동시 유방의 진동을 막아준다”, “가 슴을 모아준다”, 불만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어깨끈이 잘 흘러내린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지역 거주자의 착용감에 대 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 만족도는 거주지별, 학년별, 체형별 유의차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체 점수로는 “그저 그렇다”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고 있 다.

#### 10) 착용하는 브래지어의 치수

거주지별 총 응답자수의 70.3%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치수를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자신의 브래지어 치수를 알고 있 는 응답자 중 75B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 체의 8.0%, 60AAA와 70AAA를 착용하고 있 는 대상자가 각각 전체의 2.3%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브래지어 착용 치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대 전 지역 응답자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 다. 학년별, 체형별 브래지어 착용치수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로 볼 때 초등학교 여학생이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 어의 치수는 전체 구간에 넓게 분포해 있어 이들을 위한 브래지어 개발시 이 점을 유념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1) 선호하는 브래지어의 소재 및 브래지어 유형

대부분의 응답자는 브래지어의 소재에 관 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거주지, 학년별 로 볼 때 전체의 39.6%가 소재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를 알고 있는 경 우도 전체 응답자의 49.7%(소재를 알고 있는 대상자의 61%)가 순면을 선호하며, 그 다음이 스트레치성 소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거주지별, 체형별 브래지어 선호 유형에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 브래 지어 선호 유형을 보면 4학년은 전원이 사춘 기 소녀용 브래지어, 5학년은 탱크탑형, 6학 년 집단은 스포츠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 12) 대체 치수의 구입

거주지별, 학년별, 체형별로 대체 치수 구 입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 른 차이가 인정되었다. 학년별로 대체 치수 구 입특성을 보면 4학년은 전원이 “치수보다 작 은 것”을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며 5학년과 6학 년은 “치수보다 큰 것”을 구입하겠다고 응답 해 압도적인 수가 보다 큰 치수를 사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저학년은 유방이 작게 보이기를 원하고, 고학년은 유방의 성장을 당연한 신체적 변화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초등학생용 브래지어의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체성장의 조기화에 따라 만 11세 즉,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유방의 성장이 가속화되며, 유방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많은 심리적 부담이 예측되므로 이들의 유방 성장의 특성에 적합한 초등학생용 브래지어를 연구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비록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2차 성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들은 연령구분 시 아동기에 해당하므로 디자인시 성인여성의 브래지어와는 형태가 다르면서도 브래지어로서의 본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브래지어를 제작하여야 한다. 즉, 탱크탑형이외에도 런닝형 등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초등 학생의 브래지어 치수 분포는 성인과는 다르므로 다양한 컵치수와 밑가슴둘레의 조합을 통한 치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밑가슴둘레 55구간, 60구간, 65구간의 설정이 필요하다. 컵치수도 AAA, AA, A컵 등 작은 치수의 설정이 요구된다.

넷째, 초등학생용 브래지어의 개발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제작에 필요한 신체 치수에 대한 광범위한 인체 계측과 적절한 치수 체계의 설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시판되고 있는 사춘기 소녀용 브래지어에 대한 다양한 착의 실험을 통해 브래지어와 초등학생의 신체 치수 및 유방 형태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강금숙(1994), 수유부용 브래지어 설계를 위한 연구.  
 강여선(1990), 기능적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숙, 이춘계(1984), 브래지어 착용효과에 관한 연구 -40-60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2(2).

김경숙, 이춘계(1993), 평면 사진 계측에 의한 유방 형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4).  
 김선미(1993), 중년기 여성의 브래지어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은(1991), 시판 화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불만족 요인 연구 -브래지어와 거들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아일보(1996), 1996.11.25일자  
 박명순(1975), 여대생 브래지어 치수의 분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미(1995), 성인여성의 유방 형태 분석과 브래지어 컵수 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20대와 40대 여성 중심으로),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박춘희(1982), 발달심리학 개론.  
 서봉연, 이순형(1983), 발달심리학(아동발달).  
 백무현(1987), 한국 미혼여성 유방의 생체 계측치에 대한 통계학적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4(2).  
 손부현(1994), Sports-bra의 컵소재에 따른 방진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영숙(1987), Foundation의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혜경, 최석철(1990), 브래지어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4(2).  
 이경화(1994a), 노년여성 흉부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I), 대한인간공학회지 13(2).  
 이경화(1994b), 노년여성의 흉부 형태 분석 및 브래지어 치수 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화(1995a), 노년여성 흉부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II), 원광대 논문집 29권.  
 이경화(1995b), 노년 여성용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흉부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9(6).  
 이경화(1995c), 한국 여성 브래지어 치수 분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3권 6호.  
 이경화(1996), 화운데이션 의류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I), 원광대 논문집 31권.  
 조선일보(1996), 1996. 4. 16일자.

- 한국산업규격 KS K0070-1987, 브라지어의 치수.
- 間壁治子.赤塚博江(1985), ファウンデーションの着用に関する現状調査について, 織消誌 26(11).
- 土井サチヨ(1986), 體型と衣服, 同文書院.
- 平岡禮子(1990), マイファウンデーション, 正しい下着えらび(1), 衣生活研究, 4月.
- Armstrong, H.J.(1987), Pattern Making For Fashion Design, Harper & Row.